

'2026년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 출범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3월 31일 (화) 공사 업무동 13층 강당에서 '2026년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는 시민이 가락시장 유통 현장에서 진행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공사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안전지킴이들은 가락시장 유통 현장에서 방사능 검사용 시료 채취, 안전성 검사 과정 참

관, 원산지 표시 홍보, 농산물 등 급표준화 검사 참관, 수산물포수질검사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안전지킴이는 총 7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시민지킴이 20명, 청년지킴이 20명, 새마을지도자 서울시부녀회 25명,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되어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지킴이를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 중장년층 중심의 참여구조를 미래세대로

확대하고, 세대 간 균형 있는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안전지킴이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식품안전 관리체계 소개 ▲2026년 안전지킴이 활동 안내 ▲위촉장 수여 및 대표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 위촉장 수여와 선서에는 청년지킴이 대표 전유상 씨와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서울시부녀회장 최은미 씨가 참여해 시민 먹

거리 안전과 가락시장 유통 신뢰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위촉된 안전지킴이들은 올해 12월까지 총 9회의 조별 순환 현장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위촉된 청년지킴이들은 현장 체험과 더불어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확산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외연을 넓히고, 도매시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 공감과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대식을 주관한 안락 환경조성본부장(직무대리)은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는 시민이 직접 검사와 홍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도매시장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며, "청년층의 새로운 참여와 기존 참여자들의 경험에 더해져 보다 균형 있는 시민참여 안전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 발대식(서울시농수산물공사(제공))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

'의사' 마약류 불법 처방 형사조치 첫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17,363정을 과다하게 장기간 처방하였다.

참고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의존성, 금단증상을 일

킬 수 있고 심혈관계 이상(두근거림, 고혈압, 폐동맥고혈압), 정신신경계 이상(불안, 불면, 우울증, 중독)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의사도 처방이 제한된 항정신성 의약품이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1342응급지원센터(24시간 마약류 전화·문자 상담센터)' 이용을 권유하여 재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적극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덕 기자
press582@nonguetimes.com

전남농기원

'갈색거저리 오일' 항염·미백 기능성 소재 주목



▲갈색거저리연구(전남농기원 제공)

미백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으며, 항균 활성 평가에서는 일부 유해균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오일이 안전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를 주도한 임윤지 연구사는 식품 분야에서 오리엔탈 드레싱, 화장품 분야에서는 오일 미스트와 오일 밤 제형을 개발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식품·화장품 활용 가능성 확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갈색거저리 유충에서 추출한 오일이 항염증, 항균, 미백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여 식품 및 화장품 분야의 기능성 지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식용곤충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 원료를 회수하는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갈색거저리 오일의 고부가가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착 착유 방식을 적용해 오일을 제조하고, 착유 조건에 따른 품질 특성과 기능성 성분, 항산화 활성 및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갈색거저리 오일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일부 조건에서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평가에서도 항염증과

고구마 가공 제품별 최적 품종과 제조 공법은?

용도별 맞춤형 품종 선택과 굵기·찌기 등 가공법 제시

고구마는 조리 방식과 품종에 따라 당도와 식감, 기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페이스트(양념), 말랭이, 음료용 분말, 칩 등 용도에 맞는 품종과 가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고품질 고구마 가공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고구마 11개 품종을 대상으로 가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품질 특성과 최적 조건을 분석했다.

먼저 페이스트의 경우, 빵·떡·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 원료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품질 균일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굵기' 처리 시 수분이 감소하고 당도가 증가했으며, '소담미'와 '호풍미'는 구운 뒤에도 부드럽고 유연한 질감을 유지해 다양한 제품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율미'는 굽는 과정에서 접

도가 높아져 페이스트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분질 특유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살린 다른 가공 형태에는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말랭이 제품은 최근 고구마 페이스트를 활용한 형태가 시

장에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찐 고구마를 건조하는 방식과 달리, 페이스트를 활용하면 부드러운 식감과 균일한 품질 구현이 가능하다. '소담미', '단자미', '호풍미'로 만든 페이스트 말랭이는 건조 후에도

60~110N 수준의 경도를 유지해 쫄쫄한 조직감을 구현하는 데 적합했다.

음료용 분말의 경우, 건강·간편 음료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구마를 '찌기' 처리한 뒤 60~80°C에서 열풍 건조할 경우 물에 대한 용해성과 분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호풍미'와 '풍원미'는 용해도와 당도가 모두 높아 음료용 분말 원료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색고구마 '보다미'는 가공 및 건조 조건과 관계없이 항산화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기능성 음료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고구마 칩은 품종에 따라 수분 함량과 기름 흡수율, 식감 차이가 커 원료 선택이 품질을 좌우한다. '소담미', '신자미', '호감미'는 수분 함량이 낮고 기름 흡수율이 적어 바삭한 식감의 칩 제조에 적합했다. '호풍미'와 '주황미'는 당 함량이 높아 풍미가 뛰어난 칩 원료로 활용하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페이스트

대한제분

Enriching your life

대한제분은
지난 70여 년을 쉬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고객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즐기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제분은
1998년 10월 26일 정간 등록번호 서울04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상계빌딩 601호
지사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e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etimes.com
자매사 농업경제
발행간판 발행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인쇄인: 이정자
광고 전화: 02-582-4016
구독 월 8,000원 / 년 9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